

2007 11월호 제392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11 월호

발 행 일 : 2007. 11. 20

등 록 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 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련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 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 홍 정 옥

비매품

주부교실

2007
통권 제392호 11

생각해봅시다	4	우리의 딸들은 여자 대통령을 볼 수 있으려나 / 나임윤경
인지도조사	6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토론회	8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소비자상식	11	우체국 이용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발사례	12	소비자의 소리 / 광정자
알아봅시다	14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비자경보	16	'불법펀드'의 유혹, 조심하세요!
소비자뉴스	18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업소 적발돼
식품뉴스	20	GMO 표시 대상 품목 대폭 확대
건강뉴스	22	만6세 미만 영유아도 '무료 건강검진' 혜택
풍트	24	이웃집 남자 / 김지연
이달의 요리	26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 요리
음식이야기	28	역사 속의 '김치'는 어떤 모습이었나?
사례발표	30	예구 하나 달고 나오지/배정옥
견학소감	32	'쌀 생산현장' 방문을 마치고
지부소식	33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서비스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 및 '주부대학 30주년 기념 가족사랑·이웃사랑 디너콘서트'

〈표지사진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중앙회, 07. 11. 13), 제8회
대구사랑 가족동요 부르기 대회(대구광역시지부, 07. 11. 3)〉



우리의 딸들은 여자 대통령을 볼 수 있으려나

나임윤경 / 연세대학교 문화학과 교수

대통령

선거 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해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경선이 각각 한 명씩의 여성 후보자를 갖고 있었을 때만해도 이번 대선 과정이 재미있을 것으로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당과 상관없이 심상정 씨를 맘에 두고 있었던 터라 민주노동당의 경선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예상대로 심상정 씨는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되지 못했지만 예상 밖의 놀라운 위력을 보이며 두 남성 후보자들과 박빙의 승부를 가렸다. 한편 총리까지 지낸 한명숙 씨의 싱거운 경선 과정에 비해 박근혜 씨는 이명박 씨와 그야말로 눈금만큼의 차이를 보인 경선결과에 승복함으로써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부터도 칭찬을 받는 등 인상적인 경선과정을 만들어 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대선 여성 후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재미없다. 여성 유권자들만 뽄뽄 뽄친다면 여자 후보는 물론 대통령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 일 텐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사실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낮지만 않다면 굳이 여성 유권자들이 합심하여 여자 대통령을 만들어 낼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여성 정치 지도자가 아

쉬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 유권자들의 단합이 필요한 때는 아닐까.

추측컨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 서울 시장 선거에 패한 것은 여당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가 시부모 봉양은커녕 '여성적 역할'인 남편 내조와 자녀 양육을 생략한 것에 대한 포레 여성들의 반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실제로 그의 지지층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40대 남성이 강금실 후보(43.1%)와 오세훈 후보(41.1%)를 비슷하게 지지한 반면, 여성은 강금실 후보(36.8%)보다 오세훈 후보(53.7%)를 훨씬 많이 지지했으며, 이런 현상은 40대와 50대 여성에서 두드러졌다(주간조선, 2006. 4. 24).

"평범한 '며느리'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1982년 결혼 후부터 지난해 시어머니가 세상을 뜬 때까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치매였던 시아버지의 경우엔 6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다고 한다" (동아일보 2004. 7. 24), "일하는 여성으로서 집안 살림을 해대기는 벅찬 일이었지만 그는 지난해 시어머니가 작고할 때까지 시부모를 모셨다. 시아버지의 경우 6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04. 7. 23) 등은 김영란 대법관 임명 당시, 언론

이 그를 평가한 내용이다. 이처럼 한 여성 인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가 가진 전문성과 능력에 더해 얼마나 '여성적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도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역할은 여성에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게다가 언론들은 김영란 대법관의 그 힘든 시부모 봉양방식을 '평범한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했으니 그 일을 하지 않은 여성은 평범 그 이하의 여성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현재 대선 후보로 나가 있는 한 남성은 "여권 운동가들이 여권 신장에만 신경을 쓰다가 가정문제에는 소홀했다. 여권 운동가들부터 자신의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니, '여성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그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공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지지하지 않았던 여성 유권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역시도 이런 것 아니었을까.

물론 '여성적 역할'을 하지 않은 '잘난' 여성을 보고 있다면 맘이 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도 아이들 기르고 양쪽 부모 보살피느라 머리 모양 한 번 다듬을 새도 없는 '아줌마'가 되어버렸는데, 그 '잘난' 여성들은 우아하게 남성들과 똑같이 앉아 깔깔거리고 웃고 즐기며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배가 아프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내 딸들이 나는 물론이고 그 '잘난' 여성들도 보면서 성장하고 있으니 그 '잘난' 여성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당당해져야 내 딸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또한 그 '잘난' 여성들이 사람들 앞에선 저렇게 당당하고 거칠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그 남성들과 경쟁하려면 남모르는 어려움은 얼마

나 많을까 하고.

나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나는 하루 종일 '많은 불에 올려놓은 콩' 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며 산다. 나는 자식 없는 남자교수는 물론 자식 있는 남자교수들보다 부모님 등 가족은 물론 학생들과 관련한 보살핌 노동을 훨씬 많이 한다. 한 달이면 몇 번씩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나는 언니 오빠에게 그 시간 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꽤나 시간이 많고 우아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고 때문이다. 나는 나의 지나치게 바쁜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가장 친한 친구 애경이의 딸 소원이는 나를 "멋있다"며 닮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는 여대생들에게처럼 소원이에게도 책임감을 느낀다. 소원이가 자기 엄마의 훌륭한 인품을 닮으며 성장하기도 하겠지만, 집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를 보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내가 어릴 적 가장 닮고 싶었던 여성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한국 소비자 운동의 대모인 정광모 선생님이셨다. 그 분이 TV에 나와 자신만의 목소리와 견해를 가지고 남성들과 당당하게 토론하시던 모습, 호탕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닮고 싶은 여성'의 이미지를 각인하였다. 그 분의 짧았던 머리가 멋져 보여 나는 지금 그 분처럼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잘난' 여성들은 더 잘나져야 하고, 더 당당해져야 한다. 우리가 여자 대통령과 정치가와 행정가를 가져야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딸, 조카딸, 손녀딸, 그리고 친구의 딸들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의 딸들은 '잘난' 여자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맘먹기 나름이니 한 번 슬슬 뽄쳐나 볼까?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알아보기 어렵고, 에너지 절감 효과 모르고 있어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8월~9월까지 전국 16개 지역 소비자 1,681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 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해 에너지절약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급 확대 등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고자 했다. 다음은 조사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알고 있지만, 응답자 66.3% “크기 작고, 내용 복잡하다”고 답해

응답자 1,681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의 73.0%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15.0%, 대체로 알고 있다 58.0%)로 응답했으며, 27%는 ‘모른다’(대체로 모르고 있다 21.3%, 전혀 모른다 5.7%)고 응답했다.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본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총 응답자의 88.7%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1.3%로 나타나, 2002년 보다 ‘있다’고 응답한 비율(85.7%)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가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어떤 점이었는지 알아본 결과(표 1) 표시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내용이 복잡하다’ 32.6%, ‘표시된 위치를 찾기 어렵다’ 29.9%, 기타 3.8% 순으로 나타나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따른 전력 소모량 차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4%에 불과해

가정용 전기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이 붙어 있고 이 중 1등급이 에너지절약효과가 가장 높은 제품이다.

에너지절약 효과가 가장 높은 등급이 어느 등급인지 알아본 결과, 1등급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1등급과 5등급의 전력 소모량의 차이는 제품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등급 제품

은 5등급 제품에 비해 30~40% 정도 절약된다. 이에 ‘1등급과 5등급의 전력소모량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총 응답자 1,646명 중 30~40%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경우는 8.4%에 불과한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7%로 10명의 응답자 가운데 3명꼴로 답해 에너지절약제품의 정확한 절감 효과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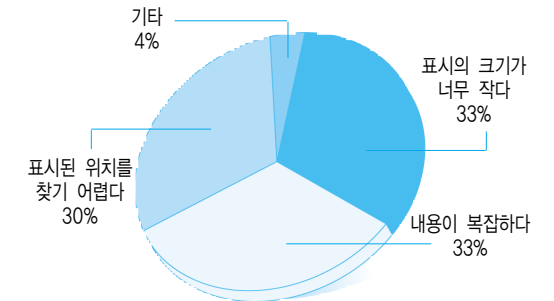
제품 구입시 ‘에너지 효율성’보다 품질(38.9%)과 가격(18.7%)을 우선 고려해

평소 제품 구입시「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반드시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19.2%, ‘대체로 확인하는 편이다’ 46.9%로 확인한다는 응답자가 66.1%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미확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가 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심이 없어서’ 27.3%, ‘에너지절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7.2%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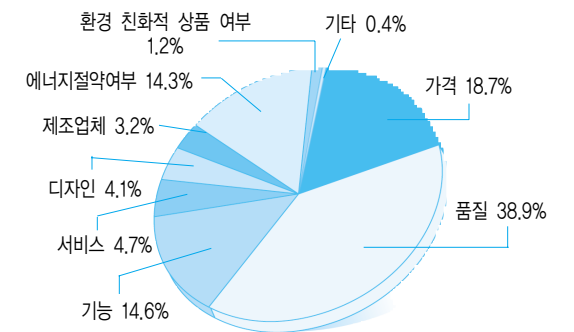
가정용 전기제품 구입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표 2)으로는 응답자 38.9%가 ‘품질’이라고 답했고, ‘가격’ 18.7%, ‘기능’ 14.6%, ‘에너지절약여부’ 14.3% 순으로 나타나 에너지절약 제품 보다는 품질과 가격을 먼저 고려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결 론 ●

이번 조사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인지도(73.0%)에 비해



〈그림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문제점



〈그림2〉 가전제품 구입시 선택 기준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등급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에서 에너지절약 여부 보다는 품질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것에서도 에너지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홍보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의 에너지절약교육 강화, 그리고 소비자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확고한 실천 의지, 제조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투자 및 기술 개발 노력 증대가 필요하다.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유가급등, 자원고갈, 환경문제 등 지구적 차원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절약·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중앙회는 11월 13일 아쿠르트회관 강당에서 회원 250여명 대상으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에너지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주제발표: 에너지 저소비 환경구축을 위한 전략

-박희천 /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조사보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지도 조사결과

-임경애 / 본회 사무총장

지정토론회

-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전호상 /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교육실장
- 에너지 저소비 환경구축을 위한 전략
-이기명 /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방안
-김형우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에너지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저소비 환경 구축해야

석유의 배럴당 가격은 불과 5년 만에 23~24달러의 4배인 90달러 중반까지 올랐다. 석유의 최대 생산량이 이미 도달하였다고 해도 석유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는 과거와 같이 배럴당 40~50달러의 싼 석유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저소비 환경구축은 석유의 가격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고 지속적 개발을 가능케 한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2차 공약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압력이 강화될 것을 감안하면 에너지시스템 효율화는 더욱 시급하다.

기술발전 즉 에너지효율 향상만으로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거나 그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행태를 변경해야 한다. 에너지효율 향상 외에도 에너지 및 자원절약, 이용률, 재제조율 및 재활용률의 제고 등을 통하여 국가의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에너지가격의 왜곡이 시정되어야 에너지시스템 효율화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기준 강화하고 있어

전호상

에너지효율향상 및 절약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에너지 소비증가율 및 에너지탄성치는 둔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성장경제로서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이에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소비부문별 효율향상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 강화를 위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인 에너지진단 운영시스템을 구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통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인기관인 제3자가 그 이행 여부를 평가 및 인증하는「에너지경영시스템」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연비개선을 위한 자동차 소비효율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LPG 경차 보급계획을 세워 2009년부터 차량을 보급기로 했고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미래 친환경 자동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가정·상업, 공공부분 등의 소비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을 위한 효율관리 대상 확대 및 관련 기준 강화에 힘쓰고 있다.

「대기전력 줄이기」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이 중요해

이기명

산업화 진전 및 급속한 경제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컴퓨터 모뎀, 프린터, 스피커는 물론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용 셋톱박스 등 IT 기술의 발달로 전기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실천 사항 중 우리가 무심코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바로 '대기전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전력'은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두어 낭비되는 전기로 가정의 전체 소비전력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전원만 끄면 전기가 차단되려니 생각하지만 플러그를 뽑지 않는 한 전기는 계속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전력만 잘 차단해도 가구당 평균으로 연간 306kWh, 3만6700원, 즉 한 달분의 전기요금을 안 내는 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물론 대기전력을 최소화한 에너지효율적 가전기기를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정부 역시 갈수록 늘어가는 대기전력 소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참여형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해야

김형우

계속되는 고유가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승용차 요일제를 실천 및 에너지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운동은 정부 주도의 캠페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이용효율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캠페인에는 민간 단체가 앞장 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참여형 에너지절약 캠페인 활성화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업은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및 고효율기기·설비 확산해야 하고, 정부는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단체는 자율 절약문화 조성으로 범국민 절약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소비자인 국민 모두는 고효율기기 구매 및 사용을 통해 소비절약을 생활화해야 할 한다. ■



우체국 이용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우편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체국 가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평소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편지나 선물로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체국 관련 상식을 알아두자.

■ 일반편지 배송시간은?

일반편지의 평균 배송기간을 평균 3~4일 정도 소요된다. 동일 지역권에 속해 있으면 3일 안에도 배송될 수 있다.

■ '익일특급 우편제도'와 '익일 배달제도'란?

보통 알고 있는 '빠른우편'이 이용률이 저조해 2006년 3월 1일 폐지됐다. 대신 '익일특급 우편제도'가 도입됐는데, 익일특급은 등기서비스가 추가된 우편제도로 예전의 빠른 등기라 생각하면 된다.

'익일 배달제도'는 당일 접수 하면 익일 본인에게 배달해주는 제도다. 단, 우체국 마감시간 전에 접수해야 한다.

■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란?

우편물 제작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우체국이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발송하는 내용문과 수취인 주소를 가까운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 접속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규격 봉투 디자인이 아니라 봉투 표면에 고객이 원하는 글이나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 '등기 소포'와 '우체국 택배'와의 차이점은?

우체국 택배는 집으로 직접 물건을 가지러 오지만, 등

기 소포는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를 해야 한다. 등기 소포는 우체국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에 비해 요금이 500~1,000원 정도 저렴하다.

■ 우편으로 현금을 넣어도 보낼 수 있나?

원칙적으로 현행 우편법상 현금을 넣어서 보낼 수 없다. 현금을 주소지로 보낼 때에는 우편환 및 통화등기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 비규격봉투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규격 외 봉투는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봉투 오른쪽 하단에서 17mm 부분에 문자나 기호를 기재할 경우 우편물 기계처리가 곤란하여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규격 외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포장지와 상자를 판매하지만, 가격은 우체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해외로 보낼 수 없는 것은?

우체국에는 해외로 보낼 수 없는 우편금지제품이란 항목이 있다. 대부분 알고 있는 폭발성 물질, 휘발성 물질, 인화성이 강한 물질, 마약, 불법 복제품 등 다양하지만, 각 나라마다 보낼 수 없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로 보낼 때는 반드시 우체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서울의회' (통권 제107호)에서 내용 발췌〉

소비자의 소리



건강신발 착용 후 불편해 환불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내용 박윤희(수원시 매탄동)씨는 2007년 10월 20일 기능성 신발 매장인 '닥터포닥터'에서 248,000원에 건강신발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착용 3~4일 후 지난 후 부터 새끼발가락이 아파서 신발을 확인 해보니 시접이 한 겹 더 박음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매장에서 거절했다.

처리 하자품인 것 같아 본사에 의뢰하니 본사에서 개선되지 않은 부분임을 인정하고 현재 '리콜 대상'이라 하며 매장에 방문하면 환불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소비자가 구입 매장을 방문해 환불 대신 아이들 신발로 교환하는 것으로 처리 되었다.

대중음식점에서 신발 분실, 배상액 합의 안 돼

내용 장민수(경기도 안양시)씨는 2007년 10월 24일 '하나로 해물찜'이란 음식점에서 식사 후 나오려는데 본인의 신발이 분실된 것을 알

게 되어 임시로 음식점에서 준 신발을 신고 가게 되었다.

분실한 신발은 나이키 제품으로 10월 8일 119,000원을 주고 새로 구입한 것이라 음식점에 손해보상을 요구하니 사업주도 억울하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다.

처리 음식점 업주에게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의거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 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소비자가 신고 갔던 신발을 가져갔지만, 분실된 신발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 5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해 10월 29일 배상 처리 하였다.

의류매장에서 받은 현금 보관증, 1년 후 액수의 1/2만 인정해 불만 제기

내용 이은정(대전시 중구)씨는 1년 전 대전

시 은행동 밀라노 2층 '보보스 매장'에서 옷을 구입했다가 맘에 안 들어 반품했었다. 그 당시 환불해 줄 수 없다하여 73,000원을 현금 보관증으로 받았으나 차일피일 교환을 미루다가 얼마 전 현금보관증을 갖고 매장에 찾아가니 73,000원 중 반액만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

처리 매장측에 현금영수증은 일반채권이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년 전 발급한 것에 대해선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함을 알려 소비자의 요구대로 현금 전액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화상과외학습 중도 해약 하려하니 위약금 과다 요구

내용 조성현(전남 나주시)씨는 2007년 7월 4일 'MBC 홈 아카데미(광주시 북구중흥)'에 화상과외 학습을 신청했다.

24개월 480만원의 가격에서 할인을 받아 3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지만, 2개월 후 아이가 집중력도 없고 학습 흥미를 갖지 못하고, 더구나 학원 과외시간과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약을 하고자 아카데미에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처리 해당업체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해약이므로 계약 당시 받은 증정품(동영상 전자사전48만원), 가입비 20만원, 학습 개월수 3개월12일(68만원), 미경과 잔여월수에 대한 위약금10%인 48만원 등 184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근거해 업체측이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부분이 인정돼 소비자와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 소비자가 가입비 20만원, 증정품 비용 20만원인 총 40만원을 제외한 144만원을 해당업체에 입금하면, 2주 이내로 카드매출전표를 최소화해주는 것으로 합의 처리했다.

집 전화와 초고속인터넷(하나포스) 한 묶음으로 사용, 2개 회선 요금으로 각각 인출돼

내용 차성자(도봉구 창4동)씨는 집 전화와 인터넷을 한 묶음으로 07년 6월 18일 3년 약정으로 '하나포스'를 개통하였는데 인터넷 회선은 하나인데 2개의 회선 요금으로 각각 인출되었다.

7월~10월까지 4개월분이 추가로 이중 인출되어 고객상담실인 106콜센터로 수차례 전화로 항의했으나 통화했던 상담원들(남녀4~5명)이 여러 명인데다 서로 해결을 미루며 지연시키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리 하나로텔레콤 C/S관리팀에 민원내용에 대하여 조회 확인 후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 결과, 소비자의 민원 내용에 대한 106콜센터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4개월 추가 청구분에 대해 조정 후 당일 환불 신청되어 11월 7일 103,460원을 환불 받았고, 해당업체에 대해 패널티 부여 및 주의조치가 진행됨을 안내하고 민원 종결 처리하였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한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연말 정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바뀐 항목들이 많은 만큼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달라진 점을 미리 숙지해 꼼꼼히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 정산 내용을 알아보자.

◆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올해부터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이면 150만 원, 4명이면 250만 원을 공제받는다.

◆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의료기관 등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스케일링, 보약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도 치료 목적의 성형 수술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금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의료지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다니는 학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만 다니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 혼인, 장례비용 공제

확대 자녀 및 부모의 혼인, 장례비용의 연령 제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와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을 치르는 경우에도 건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사의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여러 번 이사를 했더라도 매번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정치기부금이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며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1분의 10만 공제돼 10만원을 내면 주민세를 포함해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 이런 항목도 알아두면 좋아요!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번 달 11월까지만 적용된다. 내년도 연말정산(2009년초

지급분)부터 신용카드 및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당해 연도 1월~12월 사용분으로 바뀐다.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기존처럼 직전연도인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사용액이 인정되지만, 다음 달인 12월 카드사용액 및 의료비는 내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내년에는 총 13개월치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종전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소득공제용 증명 서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은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은 다음 달 12월 11일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은 12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동의를 있다면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자료참조 : 재정경제부>

「불법펀드」의 유혹, 조심하세요!

최근 증시황으로 무자격자가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펀드가 등장해 투자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펀드 투자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불법 펀드 식별 및 피해예방요령'을 공개했다.

■ 올바른 펀드 투자

무자격자가 인터넷·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투자자금)를 모집하고 운용하는 사례는 소위 '불법 사설펀드' 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펀드는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펀드 판매회사(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는 금감위에 등록해야 한다.

올바른 펀드 투자는 판매회사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판매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온라인펀드 역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자설명서를 읽은 후 창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불법펀드의 주요 유형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한 주식투자

카페 개설 초기는 단순한 주식정보를 교환하면서 회원 모집 후, 일정 회원수 이상 가입시 거액의 자금 운용, 전문적 투자를 통한 고수익 보장 등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함.

〈사례〉 〇〇〇 투자연구소(〇〇〇 카페) 사례

□□고액 계좌 위탁 서비스

- 투자자의 증권 계좌를 위탁받아 매매하는 방법으로 고액 투자금의 자산관리

- 투자자가 “〇〇증권”에서 계좌 개설후 HTS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할 것을 권유
- 예상수익: 높은 수익률 제시(연 최소 200%~최대 400% 예상)

- 투자보장: 매수종목이 하락할 경우라도 수익실현이 없을 경우 초기 가입자의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광고

2. 해외부동산에 투자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관심이 증대하면서,

일반인들이 관련정보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함.

〈사례〉 베이징 주택건설 프로젝트 공모 펀드 광고 사례

□□투자금액: 1구좌 2,000만원(한도 개인 5구좌)

□□투자수익: 기본 확정수익률 28%+ -5% 범위 내 (변동요인: 환율 등)

□□투자자 보장책: 중국지사법인 통한 중국 정부 투자자 등재 등

3. 특정 물품 임대·광고 등 사업 수익권에 운용

멀티비전(1대당 1,100만원) 기기에 대해 일정 지분을 출자할 경우 〇〇회사가 제3자와 동기기를 이용한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자에 배당함.

〈사례〉멀티미디어 자동판매기 수익권 광고 사례

□□1지분(220만원)~4지분(880만원) 출자시:

광고수익의 135% 지급

□□5지분(1,100만원)~9지분(1,980만원) 출자시:

광고수익의 145% 지급 등

4.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

네티즌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투자금을 모아 이를 투자사 등에 전달하고 투자작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고 광고함.

〈사례〉 (주)엔터〇〇 사례

□□엔터캐쉬(입금신청 후 해당 개설은행을 통해 입금)라는 사이버머니를 ②③통해 엔터펀드상 투자·거래 발생

□□총매도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고, 공모작품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경우 총 수익금의 3%를 투자대행수수료 수취

■ 피해 예방 요령

■ 판매회사 창구가 아닌 곳에서 펀드가입을 권유 받을 경우 확인사항

① 가입권유자가 「펀드 취득권유 자격」이 있는지 여부

② 해당 펀드가 「합법적으로 설정·운용」 되는 것인지 여부

③ 취득권유인은 펀드가입 안내(권유)만 할 수 있고 펀드대금은 수납할 수 없는데, 투자금까지 수금하려고 하는지 여부

■ 펀드에 가입시 확인사항

① 취득권유인이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은 유자격자인지 확인

-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홈페이지 → 「등록판매인력조회」

② 투자 권유받은 펀드가 합법적으로 설정·운용되는지 확인

- ‘자산운용협회 펀드 전자공시’ 사이트 조회 → 「통합펀드검색」

■ 신고방법

불법펀드에 투자한 후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만약, 불법펀드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이 간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 (☎ 02-3786-8087)를 통해 신고한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고 입소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과 가정용 의료기기를 거짓·과대 광고한 24개소 26개 품목이 적발해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무료 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소비자 배부용 홍보물 등을 통해 근육통을 완화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단 등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현수막 등 게시물 4개소, 제품 용기 2개소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경품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하거나 제품이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등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입 농·수·축산물, 소비자 안전지수 낮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위생, 주거, 여가, 교통 5개 부문(62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측정한 결과, 수입 축산물(11.6)과 수산물(9.8), 농산물(22.5) 모두 최하위 10위권에 포함돼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100점 만점에 불과 12점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전 체감도는 각각 71.3, 49.6, 55.3점으로 측정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았다.

수입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면 식품 분야에서 냉동식품이 29.6점으로 가장 낮았고, 유제품

이 74.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내년 4월 도입

내년부터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과정을 손쉽게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보험금 가시급제도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2년), 보험금 청구 때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안내장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휴대전화 메시지(SMS) 등을 통해 추가로 알려줄 예정이다.

위조 및 불법 등기신청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 시작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휴대폰

에 문자가 오듯 자신의 땅을 누군가가 등기신청을 하면 이를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 누군가가 등기 신청을 할 경우 소유자의 휴대폰에 그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다음 달 5일부터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11월5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인터넷등기소에 무료 가입한 회원(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전국 토지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 4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법원은 이 서비스가 땅주인 몰래 공문서를 위조, 불법 등기를 신청하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농촌 노인층 대상 ‘사기성 방문 판매’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촌 지역 노인층을 대상으로 사기성 방문 판매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

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방문 판매 업체는 상품을 구입하면 추가로 상품을 준다고,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고 속여 수익 등을 판매한 뒤 과다한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정당한 반품 요구를 거절하거나 아예 허위 연락처를 알려줘 반품을 사전 차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氣)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익 구입 후 3개월간 개봉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노인들을 속여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나도록 유도하는 업자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번), 공정위 종합상담실(02-503-2387)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가의 중국산 가구, 값비싼 수입 가구로 둔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

산 가구 수입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들 중국산 가구는 원산지 표시 없이 고가의 유럽산 가구나 국산 가구와 뒤섞어 판매돼왔고,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는 고소득층 대상 고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 논현동 일대의 수입가구업체들도 포함돼 있었다.

무역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소파와 테이블·침대 등 중국산 가구를 유럽산 등과 함께 판매해온 서울 논현동과 경기도 일대의 가구 수입업체에 대해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세관 업무의 특성상 수입 통관물품에 대해 5% 미만만 선별검사가 실시되는 점을 이용해 중국산 가구를 수입해 유럽산 등과 함께 진열, 판매하는 ‘눈속임’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GMO표시 대상 품목 대폭 확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 대상 품목이 대폭 늘어나고 기준도 강화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존의 콩과 옥수수, 콩나물에 이어 면화와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도 GMO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지난 14일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결과를 거쳐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되는 이들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중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거치고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GMO 원료로 만든 제품이라고 겉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모유 먹고 자란 아이 'IQ' 평균 7점 높아

모유(母乳)를 먹고 자란 아이 10명 가운데 9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능지수(IQ)가 7점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국립과학원(NAS) 회보가 6일 밝혔다.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의 테리 모핏(Moffitt·여) 교수 연구팀은 영국과 뉴질랜드의 아동 3000여명을 대상으로 IQ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90%에서 발견되는 'FADS2' 유전자를 가진 아동들이 모유를 먹고 자란 경우, 모유 없이 자란 아동들보다 IQ가 평균 7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음식물 내 지방산의 분해를 도와주는 'FADS2' 유전자가 모유 수유와 결합했을 때 지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분석했다.

생선·과일·야채섭취 섭취, 기억력장애 위험을 낮춰

생선, 오메가-3,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할 경우 치매와 알츠

하이머 질환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반면, 해바라기씨나 포도씨유 같은 오메가-6가 풍부한 기름을 섭취하면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프랑스 국립 건강의학 연구소(INSERM)에 근무하는 파스칼 바버흐 가뮈 박사팀은 연구초기 치매에 걸리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 남녀 8085명을 대상으로 식이섭취를 조사했고, 4년간의 추적조사 후에 183명은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발전했고 98명은 또 다른 형태의 치매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정기적으로 오메가-3(카놀라유, 아마씨유, 호두유 등)가 풍부한 오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60%까지 치매의 위험률이 감소하고, 과일과 야채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0%까지 위험률이 감소함을 발견했다.

바버흐 가뮈 박사는 “비록 우리가 치매나 알츠하이머 질환의 위험을 저하와 식이 섭취 영향과

의 상관관계를 규명했으나 이러한 예방음식에 포함된 영양소의 작용기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로콜리 추출물 피부암 예방에 도움

브로콜리가 피부암 예방에 도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폴 탈라레이 박사는 인간과 털이 없는 쥐에 브로콜리의 녹색 눈에서 뽑아낸 추출물을 처방한 결과 자외선에 의한 발암성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효과가 선크림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보고서를 생명과학분야의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22일 게재했다.

브로콜리 추출물은 태양광선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암과 싸우려는 인체의 자연적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탈라레이 박사는 워싱턴 포스트에 “자외선은 세상

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풍부한 발암물질”이라며 “브로콜리 추출물이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 매년 100만명의 피부암 환자를 만들어내는 발암성 물질에 대해 직접적인 방어작용을 한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비타민C 섭취, 몸 속 중금속 배출 촉진

비타민C가 몸에 축적된 수은 배출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신대학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팀은 비타민C 섭취와 체내 중금속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병원 방문자중 체내 수은이 정상범위를 초과한 57명을 대상으로 모발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타민C 섭취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발 수은 농도가 더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비타민C는 동물실험에서 납의 체내 배출을 촉진하고 흡수를 막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비타민C를 많이 투여할수록 납 투여 1일후부터 소변과 대변 납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27%의 모발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되는 등 일반인의 수은 노출이 심각했다”며 “일상생활에서 비타민C를 섭취하면 체내 수은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확대

내년부터 닭과 오리 고기의 포장 유통이 확대 시행되고 도축장 실명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닭·오리의 하루 도축 수가 5만마리 이상인 도축장은 반드시 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해 고기를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고기를 팔 때 도축장 이름과 도축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도축장 실명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무료 건강 검진' 혜택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과학회 등의 협조를 얻어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 영유아는 누구나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고비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 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등 의료서비스를 영유아 검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호자와 영유아에게는 영유아 사망 원인 1위가 안전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은 물론 올바른 영양 및 수면 관련 건강교육이 제공된다. 또 18개월과 5세 때에는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난 12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된 2007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표(안내문)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 가능기간을 확인한 후 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2008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흡연 여성, 흡연 남성보다 폐질환 위험 높아

같은 양의 담배를 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남성 보다는 여성에서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난징대 연구팀이 1743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동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하루 흡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위험이 약 40% 가량 높은 반면 보통 정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55%, 중증 흡연자들은 77% 폐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내 난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석탄 등 연료에 의해 생기는 실내 공기 오염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는 연관성이 통계학적으로 크게 없었으나 단, 비흡연자에 있어서 겨울철 난방용 석탄 사용은 만성폐질환 위험을 약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같은 양의 담배를 피울 경우 이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위험이 약 2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팀은 이 같은 남녀 간 차이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막기 위한 공공적 조치로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 피부암 10년새 2배 이상 급증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외선 과다 노출에 의한 피부암 발병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피부과학회 노영석 박사팀의 연구결과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는 피부암 발병율이 여전히 낮지만 구리 빛 피부가 전통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다고 여겨져 온 아시아 지역에서 태닝을 하는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피부암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남성에서의 피부암 발병율이 급증한 바 연구팀은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화장을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여성들에 비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자외선 노출을 줄이고 태닝 크림보다는 자외선 차단제를 즐겨 발라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것이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루 4시간 이상 TV 보는 아이들 '고혈압' 위험 33배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이 아이들을 뚱뚱하게 만들 뿐 아니라 혈압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

과가 '미예방의학저널'에 발표됐다.

캘리포니아대학 스워머 박사팀에 의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사우스 앨러바마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2003~2005년 사이 비만 클리닉을 방문한 4~17세 소아 청소년 5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하루 2~4시간 가량 TV를 본 아이들이 2시간 이하 TV를 본 아이들에 비해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4시간 이상 TV를 본 아이들은 고혈압을 앓을 위험이 3.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소아과학회는 아이들의 경우 하루 2시간 이하 TV를 시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세계암연구기금, '암 예방 수칙 10가지' 발표

세계암연구기금(WCRF)은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하고,

10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체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WCRF는 세계 9개 연구팀 총 21명의 과학자들이 1960년대 이후 발표된 총7천건의 연구논문을 지난 5년 동안 종합 분석한 끝에 '암을 막을 수 있는 10가지 예방 수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①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삼가라
- ② 적색육 일주일에 500g까지 제한하라
- ③ 하루에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정도로 제한하라
- ④ 출산 후 6개월 동안은 모유 수유하라
- ⑤ 매일 30분씩 땀이 났 정도 운동하라
- ⑥ 당분 함유 음료보다 물을 마셔라
- ⑦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라
- ⑧ 염분 제한, 음식을 싱겁게 만들라
- ⑨ 영양제보다 음식으로 영양 보충하라
- ⑩ 평생 적정체중으로 체질량지수(BMI) 21~23를 유지하라

이웃집 男子

김 지 연/소설가

서른 다섯살의 처녀라면 누가 들어도 예쁜 나이의 규수라고 봐주지는 않겠지만 당사자인 내 마음은 아직도 소녀 가슴이다. 적어도 이성(異性) 문제에 한해서만은 그렇다는 것이다.

동대문 시장의 '또순이 포목점' 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당차고 영악한지 다 알고 있고, 웬만한 총각짜리 봉변당하지 않으려면 솜제 결혼질도 말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이웃들의 그 말은 내 혼사(婚事) 길을 막는 방패가 되고 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 겨울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외딸인 내가 포목(布木)가게를 인수하여 악착스럽게 이끌어 나가자 사람들은 우리 가게를 또순이 포목점으로 불러 주었고, 나 또한 홀로 서겠다는 의미에서 간판도 또순이 포목점으로 바꾸어 달았다.

양친의 오랜 동료들이던 이웃 가게들은 혼자 남은 내가 당신들의 딸 인양 보호해주려 애를 썼고, 실제 괜찮다는 신랑감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지만 하나같이 나보다 내 재산(부모가 남겨놓은 가게와 집)에 더 관심이 높은 위인들이어서 두 번 만나지를 않았었다. 기실은 내 혼을 빼놓을 만큼 외모가 수려한 기막힌 남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었지만, 그러다보니 훌쩍 서른 고개를 넘어서고 말았다.

사실 양친 타계하고 10년 가까이를 종업원 한명과 가게운영을 해오기만도 숨이 턱에 닿았지만, 북가좌동 언덕배기에 위치한 집 때문에 받은 시달림도 적지 않아 세월이 흐르는 줄을 몰랐었다,

집 동리는 40년 전에 대지 1백 여 평에 20평짜리 국민주

택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곳인데, 어느 사이에 동네가 아파트 단지로 서서히 잠식되고 옛 집은 우리 집과 옆 집 등 이웃대 여섯집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벌회사에서는 5년여를 꾸준히 시세보다 높은 값으로 집을 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나는 부모의 피뎌고 무엇보다 내 태생지(胎生地)이며 잔디 돌이 넓은 그 집을 팔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 고개를 흔들었다,

실제 이웃집들이 몽땅 팔려나가도 나는 끝까지 팔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갓은 회유에도 끝내 집을 팔지 않는 내 고집으로 하여 처녀가 지나치게 영악하고 '차돌' 같다는 소문은 더 크게 났고, 더불어 나이도 많아져서인지 솜제 이즘에는 선보자는 총각도 소개해주는 어른도 없었다.

그런데, 바로 휴일인 지난 일요일 아침에, 나는 눈이 번쩍 뜨이는, 아니 좀더 솔직히 가슴이 뜨겁게 박동치는 순간을 겪었다. 이웃집의 잘 생긴 젊은 남자 때문이었다.

옛날 집이 몇 채 남지 않은 이웃중의 하나인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나는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다. 아침 일찍 시장으로 출근하여 밤 10시에 귀가하고, 일요일이면 온종일 잠자는 것으로 일주일간의 피로를 푸는 판에 박힌 생활로 이웃을 사귀는 짚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침 출근 때에 장미냉쿨에 휘감겨진 낮은 담장너머로 정원수가 무성한 뜰을 산책하는 옆집 남자의 모습을 측면으로나마 가끔 접하곤 했는데, 그날 아침에는 잔디밭에 물을 주던 호스로 냉수마찰을 하는 벗은 몸의 그 남자와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친 것이었다.

남자가 빙긋 미소를 머금으며 목례를 보내왔고 나는 수영

팬티만 걸친 채 몸에 물을 맞는 조각처럼 잘 생긴 남자의 벗은 몸이 황홀해서 얼른 눈길을 돌려 버렸다.

심장이 광광 전신을 흔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딱 벌어진 어깨와 탄탄히 다져진 듯한 건강한 근육의 넓은 가슴, 날씬한 허리 그 아래로 흰줄하게 뻗은 구리빛 건각은 진정 눈부실 만큼 아름답고 강렬한 사나이 냄새를 물씬 풍겨 숨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선정적이면서, 짙은 우수에 잠긴 듯 하던 남자의 잘 생긴 얼굴과 번쩍이던 눈빛과 그윽하고 뜨거워 보던 미소가 나를 온통 사로잡아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집을 지키고 내 밥을 끓여주며 야간학교에 다니는 먼 친척 동생이, 확실히는 모르지만 얼마전에 새로 이사 온 그 집에는 젊은 남자 혼자만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식구를 본적이 없다고 귀뜸해 주었다.

좋았다. 나는 이웃에다 내가 찾는 원석(原石)의 보석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긴 세월을 보냈다는 자책감과 함께 그 남자에게 자석에 끌리듯 강한 애정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아파트 업자에게 절대로 집을 팔지 말자는 약속을 그 남자와 더불어 하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좀더 솔직한 표현은, 나를 한눈에 휘청거리게 만든 그 남자와 안면을 트고 정(情)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이후 일주일간을 나는 극심한 사랑의 열병(熱病)을 앓았다. 식욕을 잃을 정도로 그 남자 생각으로만 헤매고 끝내 일주일째가 되는 이날 아침은 새벽부터 뜰에 나가 이웃집 남자의 냉수마찰 시간을 기다렸다. 담장가의 장미를

손질하는 양 서성대는 나는 이미 정성들인 화장까지 하고 있었다.

햇살이 뜨기 전에 남자는 드디어 뜰로 나섰다. 심호흡과 함께 맨손체조를 시작했다. 그리고 잔디와 화분에 흠뻑 물을 준 후 냉수마찰로 들어갔다.

나는 숨을 길게 들여 마시면서 목을 가다듬었다.

"아, 안녕하세요!"

뜰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그와 얼굴이 마주친 것처럼 밝은 표정을 만들어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남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번쩍 들어 보였다. 남자의 얼굴에 수줍은 홍조가 물살처럼 번져나와 보면서 나는 심장이 녹아드는 것 같음을 느꼈다.

"언제 이사 오셨어요? 저는 강수지라고 해요!"

남자가 활짝 웃음 머금은 얼굴로 내가 붙어선 담장 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남자의 고혹적인 미소와 깨끗한 치아, 준수한 용모에 시종 가슴을 떨면서 낮은 담장 너머로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수지예요! 담장 하나 사이에 둔 이웃을 모르고 있었네요!"

내 세 번째 들뜬 소리와 손이 옆집으로 넘어갈 때, 뜰로 나온 친척동생이 내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고 지나가면서 속삭였다.

"언니, 목에 힘주지 말아요. 저 남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배냇 병어리래요! 언니 말 듣지도 못한다고요.....아파트를 짓는 건축업자의 아들인데, 한 달 전에 이사 왔대요. 어저께 복덕방에서 알아봤어요....." ■



경상남도 진주에서 출생, 진주여고,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67년 「매일신문」신춘문예, 1968년 「현대문학」추천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산 가시내」, 「산 울음」, 「돌바람」, 「야생의 숲」, 「흑색병동」, 「히포크라테스의 연가」, 「어머니의 고리」 등이 있고 역사소설 「논개」가 있다. 한국소설문학상, 남명문학상, 펜문학상, 월탄문학상, 한국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동덕여대 강사 및 경원대 겸임교수,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은평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소설가협회, 저작권협회 이사로 있다.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 요리

찬바람이 불면 절로 생각나는 것이 따끈따끈한 국물이다. 더욱이 얼큰하고 칼칼한 맛의 국물 요리라면 금상첨화! 얼마 전 매운맛의 주성분인 '캡사이신'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매운 음식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얼큰한 국물 요리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오징어어묵국

재료> 오징어 2마리,
어묵 100g, 무
1개, 풋고
추·붉은 고
추 1개씩, 대
파 1대, 장국 5
컵, 양념(고춧가루 1/2
큰술, 고추장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2작
은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 ① 오징어는 다리를 잡아당겨 내장을 빼낸 뒤 눈을 떼어내고 껍질을 벗겨낸다.
- ② 손질한 오징어를 물에 깨끗이 씻어 건

져 몸통은 1cm 폭으로 동글게 썰고 다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③ 어묵은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기를 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여 가로×세로 각 2cm 크기로 썬다.

④ 무는 2×3.5cm 크기로 도톰하게 썬다.

⑤ 풋고추, 붉은 고추는 어슷 썰어 씨를 털고 대파도 어슷 썬다.

⑥ 분량의 재료로 양념을 만든다.

⑦ 냄비에 장국을 붓고 양념을 풀어서 끓인다.

⑧ 장국이 팔팔 끓어오르면 무를 먼저 넣어 익힌 뒤 오징어와 어묵을 넣어 한소끔 끓인다.

⑨ ⑧의 오징어가 익으면 어슷 썬 고추와 대파를 넣고 한 번 더 끓여낸다.

콩치고추장찌개

재료> 콩치 통조림
1캔, 배추김치 1컵,
불린 당면 1컵, 미
나리 30g, 깻잎
50g, 대파 ½대, 붉
은 고추 2개, 고추장 1큰
술, 고춧가루 2작은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
작은술, 맛술 1큰술, 소금 약간, 장국 1컵



<만드는 법>

① 콩치는 체에 받쳐 국물을 거른다. 콩치통조림 국물을 찌개 끓일 때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진다.

② 배추김치는 속을 대강 털고 3~4cm 길이로 썬다.

③ 당면은 찬물에 담가 부드럽게 불린다.

④ 미나리는 손질하여 4cm 길이로 썰고 깻잎은 꼭지를 떼고 1cm 폭으로 썬다.

⑤ 대파와 붉은 고추는 어슷하게 썰고 마늘과 생강은 곱게 다진다.

⑥ 냄비에 콩치통조림 국물과 장국 1컵을 붓고, 끓기 시작하면 배추김치와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고 끓인다.

⑦ ⑥의 국물이 끓으면 콩치를 넣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맛술을 넣어 끓이다가 불린 당면과 어슷 썬 대파, 붉은 고추, 손질한 미나리, 깻잎을 넣고 다시 한 번 살짝 끓인

후 소금으로 간을 맞춰낸다.

닭야채전골

재료> 닭가슴살 400g, 떡볶이떡 50g, 양파 1개, 생표고버섯 4개, 실파 50g, 장국 2컵, 고기양념(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간장 1작은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2작은술, 다진 파 1큰술, 설탕 1/2큰술, 맛술 1큰술, 깨소금·참기름 1작은술씩)

<만드는 법>

① 닭고기는 가슴살로 준비하여 깨끗이 씻은 다음 종이타월로 살살 눌러 물기를 없앤 뒤 칼집을 넣어 썬다.

② 분량의 고기양념 재료를 잘 섞은 다음 닭고기에 넣고 고루 섞어 약 30분가량 재워둔다.

③ 떡볶이떡을 길이로 반 가른다.

④ 양파는 곱게 채 썰고 실파는 3cm 길이로 썬다.

⑤ 생표고버섯은 젖은 행주로 살살 닦아 먼지를 털어내고 물에 행군 후 채 썬다.

⑥ 전골냄비에 준비

한 떡볶이떡과 야채, 닭고기를 돌려 담고 장국을 부어 끓인다.





역사 속의 ‘김치’는 어떤 모습이었나?

한국인의 음식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김치, 더욱이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세계인의 김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김치의 기원이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김장철인 만큼 김치의 유래 및 시대별 김치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김치의 유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김치는 16세기 고춧가루가 등장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고, 초기의 김치는 단순한 채소 절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채소를 소금물에 담근다’는 의미의 ‘침채(沈菜)’는 ‘팀채’, 혹은 ‘딤채’로 발음되었는데 구개음화로 인해 ‘짐치’가 되었다가 오늘날의 ‘김치’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김치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고구려조에서 “고구려인은 술 빚기, 장 담그기, 젓갈 등의 발효 음식을 매우 잘한다”고 써어 있어 이 시기에 이미 저장발효식품을 생활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문왕이 683년에 왕비를 맞이하면서 내린 폐백품목 가운데 간장, 된장,

젓갈류가 들어 있어 발효식품이 널리 퍼졌음을 알려준다. 즉 김치류는 30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저(菹)’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며 제조방법이 변천되어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치류는 무를 주원료로 한 동치미, 짬지, 장아찌가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통배추와 고춧가루를 주원료로 한 김치류는 조선시대 중반이후에, 결국 배추와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보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시대별 김치

삼국시대 당시의 문헌기록이 없는 관계로 고대의 김치 발달과정을 확실히 규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정착생활이

보편화되어 채소류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소금 절임이 성행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치에 관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한약구급방’에 처음으로 배추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이 시대의 김치에는 순무장아찌와 순무소금절이(김치류)가 있었으며, 김치는 단순히 겨울용 저장식품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즐겨 먹는 조리가공식품으로 변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조미료가 발달되어 각종 채소에 향신료를 섞어 만든 김치가 있었음이 추정된다.

조선시대 지금과 같은 우리 김치의 형태가 시작한 것은 외래채소들, 특히 결구배추(배추의 한 품종, 자라면서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것이 특징)가 도입, 재배되어 이를 주재료로 사용하면서부터이다.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나 200년이 지난 18세기에 와서야 김치 양념으로 적극적으로 쓰였다. 조선후기에 고추를 조미료로써 사용하면서부터 김치의 담금이 다양해지고 이때부터 김치는 빨간색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궁중의 김치

조선시대 수라상은 임금이 평소에 받는 반상으로 김치는 배추김치(젓국지)와 송송이(깍두기), 국물김치 세 가지가 오른다.

젓국지는 궁중에서 담근 통배추 김치인데 조기젓이나 황석어젓을 많이 넣고 담가 붙인 이

름이다. 『조선무쌍산식요리제법』에서는 “젓국지는 배추와 무를 씻어 한 치 길이씩 썰어 소금에 절인 다음 고추, 마늘, 미나리, 잣은 채쳐 넣고 청각도 조금 넣고 조기젓국에 물을 타 끓여서 식힌 후에 간간하게 많이 붓고 뚜껑을 잘 덮어 익힌다”고 하였다.

동치미는 보통 소금과 무와 물이 기본이지만 옛날부터 궁중에서는 고명을 더 많이 넣어 향미를 더하였다. 동치미를 담글 무는 잘고 모양이 예쁜 것으로 골라 씻어서 하룻밤 절인 다음 독을 묻고 넣는다. 그 산뜻한 맛에 반한 고종은 겨울철 야참으로 동치미 국물에 육수를 섞어서 메밀국수를 만 냉면을 즐겼다고 한다. 이를 위해 배를 많이 넣어 담근 냉면용 국물김치를 따로 담갔다고 한다.

◆ 세계 속의 김치

처음으로 김치가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외국으로 이주해 간 교포들에 의해서였다. 중국, 러시아, 하와이, 일본 등으로 이주해 간 한국인들이 김치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 현지에서도 어렵사리 김치를 담가먹기 시작했고 주변의 외국인들에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현재 김치는 독특한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가치가 입증되면서 국내외의 많은 영양학자들에게 ‘미래의 식품’으로 손꼽히며 전 세계로 수출돼 세계인의 식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의 김치’ 사이트에서 내용 발췌〉

에구 하나 달고 나오지

대전주부교실에서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가정문화 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실천 운동에 이어 지난 10월 4일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성평등 가정문화 세우기 사례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수상작 11편 중 대상 수상작이다.

‘에구 하나 달고 나오지’ / ‘아들로 바꾸었으면 좋겠네’ / ‘애저녁에 없애라고 하니까’ / 시어머니의 푸념 섞인 투정 소리가 마취에서 막 깨어나는 고통과 함께 들려 왔다. 늦은 출산으로 건강하게 낳은 것만으로도 그때처럼 간절하게 신께 고마워 해보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딸을 낳은 것인지 아들을 낳은 것인지 아님 이도저도 아닌 낳다가 잘못 된 것인지 도대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뚝은 감씹은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막내 시동생은 한술 더 떠 작은 누나는 아들만 셋이니까 하나 정도 바꾸면 될 것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에 “아니 도련님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대요?” 내 뺨지도 못하고 입안으로만 웅얼거리고 말았다.

친정어머니께서는 다 점지해 주시는 대로 낳는 것이고 산모, 아이 건강한 걸로 위안 삼으시면 되지 어찌겠냐 하신다. 딸 가진 죄인이라더니 친정어머니께서 당당하지 못하고 초라하게서 계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 행로에 대해 참담함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로 눈물이 났다. 친정 8남매, 시댁 8남매 중 유일무이하게 나는 딸만 두었다. 모두들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맞춤형 자녀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말이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 퇴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며 아이에게 배냇저고리를 못 입히게 하신다. 붉은 공단으로 된 배냇저고리를 입혀 처음부터 액땀을 해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니 간호사도 ‘세상천지, 수간호사 생활 수십 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할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란다. 친정어머니께 사정 이야기를 하니 친구 분께 부탁하여 붉은 공단 배냇저고리를 마련해 주셨다. 억지춘향으로 화려하게 퇴원을 하고, 그 날부터 딸 낳은 죄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시면서 밥을 차려 가면 아침부터 국수를 삶아 내라, 국수를 삶으면 녹두죽을 쑤어 와라, 콩나물 500원어치 사다 국을 끓이면 손이 크다, 300원어치 사다 끓이면 이 많은 식구 누구 코에 붙이려고 조금 사왔냐, 말이 없으면 소 잡아먹은 귀

신이랑 사돈 맺으면 딱 이라는 등 사사건건 시비에다 심지어는 기저귀도 밖에 나가 바꾸라며 이야기 하셨다. 어느 장단에 널을 뛰어야 좋을지 사리판단이 서질 않고 이러다 바보가 되고 말지 싶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옥죄이는 일상엔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은 늦은 잠자리에 들면 어깨가 벌어진 정도의 아픔이 함께 해 차라리 이대로 숨이 멎든가 아니면 잠에서 깨어나지말든가 아침이 밝아 오지 말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놈의 해는 왜 반드시 떠오르는지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다. 죽는 것도 독해야 죽는다는 걸 알았다.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워 죽으려고 혀를 깨물어보니 아프고 피만 나고 고생만 할 뿐 죽는 것이 쉽지 않더라.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빚어 놓은 송편처럼 예쁜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힘들고 지친 내 삶이 눈 녹듯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든 열 아들 부럽지 않게 보란 듯이 키워야겠다. 꼭 그렇게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강해지며 타성에 젖어 그런대로 살게 되었다.

친정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아들 같은 자식이라고 말씀 하실 때 그 때는 몰랐다. 큰 아이를 보며 ‘내 부모님이 날 키우면서 이런 맘이었겠구나.’ 할 때가 가끔 있는데, 뒤늦은 깨달음에 안타까움이 더한다. 보통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나쁘고, 공부를 잘하면 성질이 더럽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심성이 참으로 고아, 옛 말이 모두에게 다 들어맞는 말은 아닌 듯하다.

친척들이 걸 모습은 도시지만 생활은 옛날

방식 그대로인 어정쩡한 곳에 사는 관계로 아직도 우리 집에 오실 때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 소리가 듣기 불편한지, 아이들은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며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 보라며 나에게 “아들 낳고 싶냐?” “아들 있는 집이 부럽지 않냐?” 라고 물어 오면 난 “추호에 거짓 없이 낳고 싶지도 부럽지도 않으니 염려 걱정 붙들어 매라” 고 당당하게 대답해준다. 아이들 역시 “쌍코피 나게 공부해서 당당한 캐리우먼이 반드시 될 것이니 걱정 같은 것은 하지 말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직장은 성적순”이라며 응수한다.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든든하고 멋있는 아이들이다.

딸 둘 키우면서 큰 애가 쓰던 것 활용해도 되는데 내 어린 시절의 회한과 주위의 여건들에 굶하지 않고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 주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딸 때문에 우리가족은 올해 휴가를 반납했다. “방학이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남들처럼 놀고, 쉬면 좋은 결과가 있겠냐”는 말에 부모로서 반성도 되고 건강하고 바르게 커 준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딸들이기에 더 많이 느끼고 함께할 수 있는 행복이 있다. 20년 전 일들을 들추다 보니 공연히 코끝이 찡하다. 내 딸들의 끝나지 않은 아름다운 질주를 향해 우리 가족 모두 파이팅 할 것이다.

〈배정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쌀 생산현장’ 방문을 마치고

김 옥 자 / 본회 교육국장

2007년 10월 16일(화) 회원 37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소비자단체 초청 쌀 생산 현장 방문’에 참여하였다.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 서산과 당진의 ‘탑 라이스’ 단지를 둘러보면서 1,800여개의 브랜드 쌀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고품질의 쌀을 선택해야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올해처럼 긴 장마와 흐린 날씨에 벼농사가 제대로 되었을까 우려하였으나 일조량이 부족한 기후에도 벼알이 짙은 벼이삭들로 황금들판을 이루고 있었다.

‘탑라이스 매뉴얼’을 준수해 농사를 지었다는데,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이 ‘적기’라는 단어다. 적기에 모를 심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하는 등 벼가 커감에 따라 적기·적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더불어 질소 비료도 줄여준다고 한다. 뭐든지 많이 주면 좋은 건줄 알았는데, 질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벼대가 약해져 벼가 쉽게 쓰러지고 밥맛이 떨어진다.



충남 서산영농법인 RPC에서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배만 잘하면 고품질의 쌀이 생산되는 줄 알았는데 수확 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알게 되었다.

청결한 시설관리와 첨단기계 설치로 완전미율 95% 이상을 만든다는데, ‘완전미율’이란 쌀겨, 깨진쌀, 착색립 등을 다 골라낸 완벽한 모양의 쌀 비율임을 알게 되었다. 완전미율이 낮으면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밥을 지을 때 깨진 쌀의 부분에서 전분이 흘러나와 밥맛을 떨어뜨린단다.

또한 일반 매장에 출하되기 전까지 15℃이하의 저온에서 저장하고, 도정 후 30일이 지난 제품은 수거 교환한다니 더욱 믿음이 갔다.

이번 쌀 생산 현장 방문을 통해 최고급 쌀을 보는 눈이 생겼고, 쌀에 대한 정보를 얻어 스스로의 수준을 높였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성, 고품질, 신뢰성제고를 위해 땀 흘리는 농민을 보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주부대상 브랜드 쌀 홍보교육

시지부(회장: 김기묘)는 회원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시중 브랜드 쌀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브랜드 쌀에 대한 구매의욕을 확산시키고자 친환경 우수농가 견학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12일 회원 및 주부 100여명이 기장군 철마면 외여마을을 방문해 농촌사랑 ‘1사(社) 1촌(村)’ 자매 결연을 맺고,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정종현 주사로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과정 등을 교육 받은 후 직거래로 고품질의 쌀을 구입할 수 있었다.



어린이 쌀 사랑 현장체험 학습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쌀에 대

한 교육 및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2일 봉래초등학교 5학년 학생 40명과 함께 철마면 외여마을을 방문했다. 쌀 위주의 전통적인 식생활의 장점을 비롯해 우리 쌀의 가치 등을 소개하면서 ‘쌀 사랑’ 의식 고취를 통해 쌀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



2007 양성평등 가족캠프

10월 13일 구덕청소년수련관에서 회원 및 회원 가족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7 양성평등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우리 모두 같아요’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가족캠프는 특강을 시작으로 사례 발표를 통한 편견뒤집기, 역할극, 가족화합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남녀 간의 ‘틀림’이 아니라 ‘다름’,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 서로 다른 남녀 성(性)의 공존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비자캠프

10월 14일 회원 및 가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덕청소년수련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비자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소비자캠프에서는 특히,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래 사회의 경제 주체가 될 어린 자녀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 주고자 했다.

자전거와 함께하는 환경보전 실천 운동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전거 이용이 점차 늘고 있어 자전거 안전 관련 교육 및 실기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10월 8일~15일 삼락체육공원에서 회원 및 청소년 각각 25명을 대상으로 ‘그린 여성 자전거 교실’과 ‘청소년 자전거 교실’을 운영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이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방법임을 강조하며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실천으로 맑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산후 조리원 실태조사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가족이 담당했던 다양한 기능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 산후조리원은 맞벌이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이용 요금 등 관련 소비자 문제가 빈발하고 있어 10월 24일 회원 5명이 부산 동구, 동래구 남구와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대구광역시지부

모니터 하반기 교육생 수료식

시지부(회장: 손기순)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8월 말부터 8주 동안 모니터 교육을 실시한 후 지난 10월 26일 중앙도서관 3강좌실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신재생 에너지 심화교육, 식중독 및 의약품 오남용 실태, 농산물 원산지 관리 등의 교육을 수료한 44명의 수료생들은 담당 분야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방안 제시 등 모니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봉사활동

10월 12일~14일 예술문화축제장

신천과 젊음의 거리인 동성로를 무대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회원 7명이 참여해 신천둔치에서 ‘건강 가정 육성 및 저출산 개선 운동’ 홍보를 위해 부스를 운영했다.

쌀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중국산 저가 품질의 쌀을 비롯한 잡곡이 유입되면서 우리 쌀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지난 10월 10일~23일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5명이 대구시 전역 재래시장 및 쌀 도·소매점을 방문하며 쌀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에너지절약캠페인

10월 17일과 29일 대구동신초등학교와 범어네거리 앞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대구지사 직원과 회원 40여명이 공동으로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



했다.

수돗물 체험 투어

10월 30일 회원 10명이 대구수돗물 원수채취장과 두류정수장을 방문해 수돗물 생산·관리 과정 등 수돗물 공급 과정 및 원수관리 실태를 체험하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인천광역시지부

노인소비자를 위한 효율적인 소비문화교육

시지부(회장: 한해자)는 노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10월 5일 삼산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70여분을 모시고 노인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악덕상훈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인 소비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연극을 통



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제8회 인천사랑 가족동요대회

10월 13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중앙광장에서 회원 가족 및 일반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인천사랑 가족동요대회’를 개최했다. 동요보급과 함께 가족 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올라온 11개 팀이 그동안 쌓아온 가족 사랑을 노래에 담아 선보였다.



축산물 교육 및 캠페인

우리 축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 23일 회원 45명이 참푸드 축산물 가공장을 방문해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가공 처리되는 과정을 둘러보면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일에는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

로 연희 철강 내 식당에서 H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해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회원 40명이 부평역 광장에 모여 축산물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어린이 쌀 사랑 현장체험 학습

10월 27일 회원과 어린이 40여명이 강화군 용두레마을을 방문해 쌀 사랑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도시 생활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농촌체험을 통해 쌀농사의 중요성과 쌀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전통 식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했다.

봉사활동

서구지회(회장: 이민자)는 지난 10월 8일 회원 8명이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노인 300분의 점

심식사 도우미 활동과 함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신을 위한 도시락 싸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0일에는 석남 2동 동사무소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자회에 회원 7명이 봉사요원으로 참여해 각종 물품과 먹을거리를 준비하며 판매 도우미 활동으로 기금을 마련했다.

계양구지회(회장 : 고영숙)에서는 10월 4일 경인여대와 계양공원 주차장 앞에서 재난안전 관리과 주관으로 열린 「재난 발생 상황별 주민 행동요령」 홍보에 회원 5명이 참석해 자연재해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교육을 받았다.

6일 계양교대 운동장에서 열린 '계양구민의 날' 부대행사에 회원 11명이 참여해 음식바자회 코너를 마련해 판매 수익금 전액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15일과 16일에는 회원 4명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접수를 위해 오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서류 대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남동구지회(회장 : 김연숙)는 10월 8일 회원 8명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매주 월요일~금요일에는 회원 20이 길병원에서 중앙 공급실 일손 돕기 및 차 대접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부평구지회(회장 : 이순애)는 10월 13일 회원 10명이 신트리공원에서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바자회에 참여했고, 17일 회원 15명은 신트리공원에서 열린 여성단체 체육대회에 참여해 행사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강화군지회(회장 : 강혜옥)는 10월 4일, 5일, 11일에 회원 10명이 군내 위치한 노인 회관을 방문해 120여분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3일에는 동사무소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마련한 '독거노인에게 김치 담가 나눠주기'에 회원 5명이 참여해 김치를 담갔고, 14일에는 회원 2명이 강화 새우젓 축제 행사장에서 '김치 담그기 시연회'에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소비자교육

시지부(회장 : 박영희)에서는 지난 10월 4일 시지부 강의실에서 회원 및 일반주부 103명을 대상으로 1차 소비자교육에 이서 2차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례 등을 통해 먹을 만큼 음식을 마련하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 쌀 사랑 현장 체험학습

10월 12일 송정동초등학교 학생 40명과 함께 쌀 사랑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담양군 시목마을을 방문했다.

깨끗한 물만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우렁이를 이용해 해충을 잡아먹게 하는 유기농법으로 쌀을 생산하

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박물관 견학으로 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산후조리원 가격 및 서비스 실태조사

산후조리원 이용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18일~25일 회원 10명이 광주 시내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이용 요금 및 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산후조리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돼 10월 25일 시지부 강의실에서 회원 및 일반시민 10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 보조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과장·허위 광고

에 현혹되는 소비자피해사례 등을 소개해 올바른 소비자 선택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MBC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가게 나눔장터' 참여

10월 27일 전남대학교 캠퍼스 내 운동장에서 열린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MBC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가게 나눔장터'에 회원 15명이 참여해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탁했다.



울산광역시지부

어린이 쌀 사랑 체험 교육
시지부(회장 : 박보봉)에서는 10

월 7일 어린이와 회원 87명이 쌀 사랑 체험학습을 위해 울주군 봉계면 신기리를 방문했다. 탈곡 체험, 메뚜기 잡기, 송편 빚기, 새끼 꼬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시간을 통해서도 농간 거리감 해소와 쌀의 가치 및 전통적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쌀사랑을 실천하기로 했다.

'생태환경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초등학생들의 환경의식 함양 및 환경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 10월 12일, 17일, 19일 구영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 3곳에서 각각 '생태환경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환경 관련 용어 및 상식을 묻는 문제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쉽게 풀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11월에 결승전 왕중왕전을 실시하고, 각 학교에 환경책자를 기증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환경오염 저감화 실천을 유도하고자 했다.



‘어린이 다도예절 교실’ 운영

10월 20일 주부교실 교육장에서 어린이 45명을 대상으로 잃어버린 전통예절을 되찾고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문화 계승·심화를 위해 ‘어린이 다도 예절’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도덕성 함양과 새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및 물 사랑 캠페인

10월 13일 회원 30명이 동천체육관과 메가마트 주변에서 자전거 이용 관련 팸플릿 배포, 포스터 부착 등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해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울산가꾸기에 앞장섰고, 15일에는 회원 80명이 울산대공원을 출발해 시청, 현대·롯데 백화점, 현대해상까지 ‘물 사랑 실천 자전거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물 사랑 실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버 소비자 교육

최근 공짜 사은품이나 관광을 미끼로 제시한 건강식품·의료기 판매 등으로 노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10월 25일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 30분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소비자 피해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소방 안전 교육

10월 25일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초·중학생 및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불의의 재해나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 소생술 요령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우포늪 생태 체험

10월 27일 회원과 학생 및 학부모 47명이 창녕 우포늪 생태 학습지를 방문해 생태 체험 학습을 통해 우포늪의 자연사적 중요성 인식 및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했다.

대전광역시지부

양성평등 가정문화세우기 사례 발표대회

시지부(회장 : 송병희)에서는 남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양성평등의 윈윈(win-win)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남녀공존의 평등사회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지혜를 모르고 실천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양성평등 가정문화 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사례발표대회를 가졌다.

발표자 11명 및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사례발표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상을 받은 배정옥 주부는 두 번째까지 딸을 출산해 시어른

들로부터 받았던 설움과 딸을 당당하고 아무지게 키우기 위해 노력한 일 등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제6회 대전평생학습 축제 참여

10월 12일~14일 회원30여명이 대전평생학습관과 대전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배움의 행복! 꿈을 키우는 대전평생교육’이란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6회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평생교육 결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 안내부스와 비주얼,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서예, 한지공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



하는 등 배움의 기쁨을 만끽했다.

축산물 등급 판정소 및 도계 공장 견학

10월 15일 회원 45명이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군포에 소재한 축산물 등급 판정소와 충북 진천의 (주)체리부로를 견학했다.

영상물을 통해 축산물 등급판정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시설 견학과 함께 축산물 등급 판정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었고, 도계 공장인 (주)체리부로에서는 닭고기 가공과정 등을 견학하면서 우리 축산물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기도지부

제8회 소비자정보전시회

도지부(회장 : 박명자)에서는 지난 10월 16일~18일까지 경기도 여

성비전센터 내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와 구입요령 등을 올바로 전달하고자 ‘제8회 소비자정보전시회’를 개최했다.

관내 주민을 비롯해 31개 시·도 회장 및 회원, 내외 귀빈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시회에는 경기도인증마크인 G마크 상품 40여점과 친환경상품 50여점을 전시했고, 국산 농축수산물과 수입품과의 비교 전시를 비롯해 ‘소비자 알람’ 홍보물 배포, 관련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음식물류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저감화를 위한 교육

10월 17일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1층 강의실에서 회원 및 주부 80명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이 환경보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감량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회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교육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용품 중에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그 위해성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10월 25일~27일 수원시 야외음악당에서 경기도 G마크 사업단과 농협 주최로 열린 ‘제4회 아줌마 축제’의 회원 37명이 참여해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해 직접 김치를 담그며, 삶의 지혜를 담아내는 주부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저출산 현상과 사회구조에 대한 교육 및 토론회

수원시지회(회장 : 이현숙)에서는 최근 들어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인력 부족 및 성장 잠재력 저하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그 원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10월 9일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문화관에서 회원 및 일반 시민 170명을 대상으로 권혁하 강사로부터 ‘저출산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과제’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고, 17일에는 같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문화관에서 회원 및 일반 시민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사회구조적 문제점 등을 패널과 시민들 간의 토론을 통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교육

10월 17일 회원 35명을 대상으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1층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을 홍보하고 생활 속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줄이기 실천 방법 등을 소개했다.

‘수원시지회’ 개소식

10월 23일 경기도지부에서 같이 일해 왔던 수원시지회가 수원시가 가족여성회관 2층에서 31개 시·도 회장과 회원, 내외 귀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지회’ 개소식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회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진위천 살리기’ 서명운동

평택시지회(회장 : 박영미)는 10월 8일 회장 및 임원 35명 평택시 합정동 공설운동장에서 평택호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진위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시민들의 동참을 얻는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월례회의 및 ‘체육대회’ 개최

용인시지회(회장 : 장복희)는 10월 17일 용인 청소년 수련원에서 월례회를 가진 후 용인 지역 여성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 새마을 부녀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해 친목 도모 시간을 가졌다.

환경정화 활동

의왕시지회(회장 : 신동화)는 10월 11일 회장 및 회원 18명이 의왕시 오메가 약수터 3곳 주변을 찾아가 이끼제거, 물컵 닦기, 수질검사표 정리 정돈 및 주변 쓰레기 줍기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대청댐 견학 및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오산시지회(회장 : 김형례)는 10월 9일 회원 45명이 수돗물 생산 현장인 대청댐을 방문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과정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고, 18일~19일 신동아 2차 아파트와 중앙동 우남주공아파트에서 LG·삼성 전

자서비스와 기아자동차 직원 10여명, 관계 공무원 5명, 회원 38명이 함께 소비자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이동고발센터를 운영해 빠른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비자정보전시회 및 소비자 교육

10월 24일~25일까지 오산 시청 로비에서 이기하 오산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회원과 유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정보 전시회’ 개최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전시회는 소비자 정보 판넬 전시와 농산물 비교 전시를 비롯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정희 강사의 홈쇼핑 및 방문판매에 대한 피해구제와 예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2007 자원봉사박람회’ 참여
남양주시지회(회장 : 박순자)는 10월 13일 회장과 회원 10명이 남

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운동장에서 개최된 ‘자원봉사박람회’에 참여했다. 관내 50여개 지역 봉사단체가 부스를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홍보관과 체험관, 전시관, 푸드관 등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이번 박람회에 주부교실활동내역과 소비자 피해사례 및 구제방법 등을 전시해 소비자 단체로서 봉사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봉사활동

안성시지회(회장 : 정영순)는 10월 15일 회원 5명이 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필품을 전했다.



연천군지회(회장 : 장애정)는 10월 17일 회장과 회원 15명이 '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한탄강축구장과 정곡중학교를 방문해 무료로 밥을 제공했고, 22일~23일 회원 15명이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해 반찬을 제공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정보전시회 및 월례회의 개최

여주군지회(회장 : 정영희)는 10월 3일~8일까지 신록사 행사장에서 '소비자정보전시회'를 개최해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올바른 소비생활을 유도했다.

17일에는 회장 및 임원들이 소비자 고발센터 사무실에 모여 월례회의를 열어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지부

도지부 회장이 · 취임식

도지부(회장: 이금선)는 지난 10월 12일 여성정책개발센터 강당에서 내외 귀빈 및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지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제9대 회장으로 선

출된 이금선 회장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서 위상 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여성한마음대회' 참석

여성단체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여성한마음대회'에 2개 지회가 참여했다.

삼척시지회(회장 : 양명숙)는 10월 17일 삼척체육관에서 여성단체 회원 및 내빈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제9회 삼척 여성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동해시지회(회장 : 우병숙)도 17일 동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회 동해시 여성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여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미래사회 구축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봉사활동

홍천군지회(회장 : 이영표)는 10

월 13일 회원 10명이 홍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서문화제'에 참가해 행사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청북도지부

내분비계 장애물질 사용 적정화 홍보 교육

도지부(회장 : 최광옥)는 지난 10월 10일 회원 및 일반주부 50여명을 대상으로 충북여성회관 교육실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사용 적정화 및 저감화 실천을 통해 생활 속에서 환경 호르몬을 줄여 나갈 것을 강조했다.

23일에는 흥덕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43분을 대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교육을 통해 생활속 작은 실천이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충주시지회(회장 : 이상숙)는 9월 28일~10월 4일까지 충주시 탄금대 칠금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 '제10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회장 및 회원들이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고, 충주시로부터 이상숙 회장이 자원봉사단체유공자로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제천시지회(회장 : 장태봉)는 10월 7일 회원 32명이 제천비행장에서 열린 한방축제에서 야시장을 운영해 수익금 전액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시민회관 광장에서 '모·부자 가정 돕기 떡 판매' 행사를 열어 기금을 마련했다.

괴산군지회(회장 : 김문예)는 10월 5일 회원 6명이 에덴2000 청천재활원을 방문해 반찬을 만들고 청소 및 빨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단양군지회(회장 : 김길성)는 10월 2일 회원 14명이 무료 상설 전시



관에서 열린 '장애인 미술관 개관식' 행사에 참석해 초청인 300여명에게 국수 및 다과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가족동요제' 개최

옥천군지회(회장 : 유재숙)는 지난 10월 6일 옥천 여성회관에서, **보은군지회(회장 : 김홍순)**에서도 10월 13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동요 보급과 함께 가족간 화합 도모를 위해 '가족동요제'를 각각 개최했다.

참가한 가족들의 열띤 경연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모니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음성군지회(회장 : 김영옥)는 회원 4명이 금왕 장날을 이용해 금왕읍사무소에서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열어 소비자 피해를 입은 군

민들을 위한 상담 및 처리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비자센터가 되고자 노력했다.



충청남도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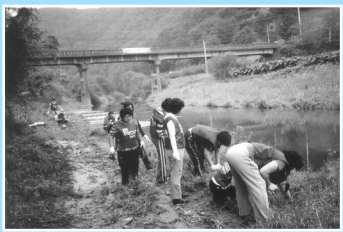
내분비계 장애물질 사용 적정화 홍보 교육

도지부(회장 : 조춘자)에서는 10월 4일 공주 우체국 대강당에서 노인 및 주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내분비계 사용 적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사용 적정화 및 저감화 실천을 유도했다.



생명이 있는 왕촌천 가꾸기

10월 17일~21일 회원 50여명이 상왕동 왕촌천에 모여 수질오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정화식물을 식재하는 등 환경운동을 전개해 왕촌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고자 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홍보 교육

10월 26일 백제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게 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홍보 교육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에너지절약기기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자 했다.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 개최

10월 30일 교통연수원에서 16개 시·군 지회 회원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회원, 주부, 공무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를 개최해 과소비 지양 및 저축 생활화로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소비자단체로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논산시지회(회장 : 홍순영)는 10월 18일 취암동사무소에서 노인 및 주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 초빙된 한국소비자원 이남희 부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판매 부당거래 조건 및 사례를 통해 방문판매 및 특수거래에 관한 소비자 피해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

부여군지회(회장 : 박금례)는 10월 26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이남희 부장은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의 주체인 소비자가 바로 물가 안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라북도지부

친환경 축산 농가 및 축산물 가공장 견학

도지부(회장 : 최원자)는 지난 10월 1일 회원 45명이 김제시 금산면 목우촌 가공장과 백구면 반월리 축산 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가공 과정을 둘러 보며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직거래를 통해 축산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

도지부는 10월 9일 회원 10명 남부시장일대에서, 군산시지회(회장 : 박희순)는 10월 11일 구시장 일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재래시장 스스로가 농산물 원산지 및 가격 표시제 실시 등으로 재래시장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 역시 감시 활동 강화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유도했다.

출산장려를 위한 주부교육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지회(회장 : 이정임)는 10월 10일 정읍시 성광교회에서 회원 및 주부 200여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웅산부인과의 웅산길 원장은 자

녀 한 명을 더 낳으려고 노력하는 지혜로운 여성이 바로 가정과 나라의 힘이라며 특히, 가임여성의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봉사활동

완주군지회(회장 : 최영숙)는 10월 한달 동안 회원 5명이 운주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5분의 집을 방문해 도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부안군지회(회장 : 김용순)는 10월 4일 부안을 모산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5분에게 생활비를 전하며 쓸쓸한 말년을 위로해 드렸다.



임실군지회(회장 : 김미숙)는 10월 2일~3일까지 회원 20명이 임실군 사선대에서 열린 '고추축제'에 참여해 행사 도우미 및 차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연정화활동

진안군지회(회장 : 한은숙)는 10월 3일 회원 10명이 마이산 입구에서 관광객 안내와 함께 주변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전라남도지부

제8회 가족동요부르기 대회

도지부(회장 : 이송자)에서는 10월 20일 KBS 목포방송국 공개홀에서 동요를 통해 순수한 동심을 키우고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제8회 가족동요부르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 가족뿐만 아니라 국내이주 외국인 여성 가족, 복지시설 거주 초등학교생 가족 30팀

을 비롯해 회원 가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상엔 김준형 어린이 가족이 수상했고, 참가가족 20팀에게 트로피와 부상을 각각 수여했다.



여성대회 참여 및 봉사활동

10월 11일 회원 20명이 전남도청 김대중홀에서 “전남의 미래, 여성의 힘으로”를 주제로 개최된 ‘제10회 전라남도 여성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주부로서의 역할 다짐 시간을 가지며 토산품 판매 행사 등에 참여했다.

또한 13일 회원 10명은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국내이주 외국인 여성가족을 위해 열린 ‘다문화 가정 가족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여주시지회(회장 : 이안자)는 10월 31일 회원 30명이 독거노인과 고

령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동여수복지관을 방문해 반찬 만들기, 중식 제공 도우미 활동과 함께 말벗 되어주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환경 캠페인 및 ‘다문화 가정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찻집’ 운영

광양시지회(회장 : 신행숙)는 10월 3일 임원과 회원 및 ‘112 자건거봉사대’ 총 200여명이 백운산에 모여 주변 쓰레기 줍기 등 정화활동을 전개했고, 등산객들에게 “우리 고장 명산 가꾸기”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맑고 깨끗한 환경 가꾸기 캠페인 동참을 유도했다.

한편, 10월 5일~8일 ‘광양 숯불고기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천변에서 회원 50명이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내 이주 외국인 여성들의 우리 문화 적응 및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다문화 가정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찻집’을 운영해 수익금으로 다문화 가정 100세대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부모 역할 교육’ 실시

고흥군지회(회장 : 박민자)에서는 10월 5일 고흥군 여성회관에서

회원 및 지역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고흥교육청 진동열 교육장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주제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관용을 베풀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상북도지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노출 줄이기’ 전시회

도지부(회장 : 이인호)는 10월 17일 구미 송정여중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22일에는 구미역 라운지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생활 속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 전시회를 개최했다.

원산지표시 이행지도 및 점검

10월 8일~25일까지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9명이 원산지표시대상 업소 500개

소를 방문해 원산지표시 풋말 및 전단지를 배부하며 표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순회전시회

10월 22일 구미역 광장, 23일 이마트 3층 무빙워크, 24일 구미문화예술회관, 25일 금오산광장, 28일 구미동락공원에서 음식물류 관련 순회전시회를 개최했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생활 습관 및 분리배출의 올바른 방법에 관한 판넬 및 자원재활용품 전시를 통해 시민에게 실제 생활 속에서의 실천 방법을 익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데 앞장서고자 했다.



봉사활동 및 캠페인

구미시지회(회장 : 한로미)에서는 10월 5일 회원 8명이 구미노인복

지회관을 방문해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18일에는 회원 25명이 구미시 선산읍 해평면 배틀산에 모여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포항시지회(회장: 김귀련)는 매주 월요일마다 회원 6명이 학산주공 아파트단지 내 독거노인 및 장애우 22가정을 방문하며 중식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0일에는 회원 30명이 중앙상가 실개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해 시민들에게 포항특산물 무료시식행사를 개최했고, 17일에는 회원 15명이 햇빛마을 요셉의 집을 방문해 치매예방 운동요법을 전하고 다과대접 등으로 쓸쓸한 말년을 보내시는 노인들을 위로했다.



경주시지회(회장: 박추자)는 10월 2일~26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에 매일 회원 10명이 참여해 행사진행도우미 봉사활동을 실

시했고, 23일에는 회원 10명이 안강읍 내 독거노인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점심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상주시지회(회장 : 육순단)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회원 4명이 상주시까지 상가주변에서 불법주차 및 불법부착물 장치 제거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10월 4일에는 회원 4명이 편모·편부가정을 방문해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어려운 생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했다.

영주시지회(회장: 정순옥)는 10월 17일 회원 10명이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만남의 집’을 방문해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고령군지회(회장 : 정숙자)는 10월 11일과 25일 회원 6명이 월막요양원을 방문해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다과시간을 가지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로했다.

군위군지회(회장 : 김은주)는 10월 8일 회원 8명이 군위군 둔치운동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바른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캠페인에 참여해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고, 같은 날 둔치 운동장에서 열린 ‘군위군체육대회’에 회원 3명이 행사 진행 도우미 및 음료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22일~23일에는 회원 6명이 군위군 8개 읍면동 관공서를 대상으로 금연 실태조사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성주군지회(회장 : 김미경)는 10월 10일 회원 10명이 군내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30명의 대구 달성공원 가을 나들이 행사에 동참해 행사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양군지회(회장 : 박정자)는 10월 6일 회원 6명이 삼삼노인회관을 방문해 청소 봉사 및 다과 시간을 가지며 말벗이 되어 드렸다.

예천군지회(회장 : 권춘선)는 10월 12일~18일까지 예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애플벨리 축제 및 군민체전’에 회원 10명이 참가해 행사 진행 도우미 활동 및 차량과 차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화군지회(회장 : 이유정)는 10월 6일 회원 3명이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다문화가정 3가정을 방문해 우리나라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며 생필품을 전달했다. 20

일에는 회원 3명, 매주 화요일마다 회원 10명이 법전 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상남도지부

국제결혼가정 가족여행 및 문화 체험

도지부(회장 : 이인숙)는 10월 4일~5일 국제결혼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11가정 가족 46명과 함께 고성, 통영, 거제, 사천 등 경남 일대를 여행하면서 문화 체험 및 가족 여행 시간을 가졌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소비자 교육

10월 16일 회원 90명이 산골녹차마을 나눔터에 모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가정생활 수칙 및 분리배출을 위한 친환경 처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

마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니터링 실시

지난 7월부터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해 실시한 ‘마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초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난 7월 16일부터 내년12월까지 회원 40여명이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109개 시내버스의 현금 수입금 확인을 비롯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버스 기사의 친절도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개최

10월 12일~18일 7일간 회원 총 150여명이 대우 백화점 3층에서 열린 ‘결식아동돕기 바자회’에 의류 판매 자원봉사로 활동했다.



모범출소자 합동결혼식 격려

10월 17일 경남도청 내 위치한 경

남도민홀에서 경생보호창원협의회에서 실시한 모범출소자합동결혼식에 참석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7가정의 미래를 축복해 주며 주방용품을 선물했다.

봉사활동 및 자연정화 활동

김해시지회(회장 : 김봉필)는 10월 4일과 25일 월 2회 정기적으로 회원 25명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노인 700여분의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9일에는 회원 18명이 은하사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밀양시지회(회장 : 김영숙)는 10월 17일~19일 회원 52명이 경남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밀양 공설운동장 외 13개소 화장실을 청소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함양군지회(회장: 정현옥)는 10월 13일 회원 15명이 함양 상림숲에서 열린 물레방아 축제에 참여해 따뜻한 음료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15일에는 회원 17명이 상림숲 주변을 정리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통고추장 담그기’ 체험

도지부(회장 : 김영희)에서는 10월 5일 제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 70명에게 무료로 제주 ‘전통고추장 담그기’ 체험의 기회를 주었다.

김명숙 계장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전통 고추장을 손수 만드는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회원들이 태풍 ‘나리’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 성금을 모아 기탁했다.

농산물원산지표시 캠페인

10월 1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0명이 농산물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사업자에게는 판매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에게는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것을 강조한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했다.

오름생태 체험

10월 27일 회원 40명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관음사에서 한라산 윗세오름 코스를 답사하는 기회를 갖고 제주 환경보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주부 소비자대학 개강

서귀포지회(회장 : 강정자)는 지난 10월 2일 서귀포시 여성회관에서 회원 및 지역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특별 강사로 김형수 서귀포시장이 자리를 빛내 주셨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주부교실게시판

■ 서비스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준수 및 정보 제공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소비자 권리 확보 및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당국과 업계에 제안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서비스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7년 12월 4일(화) 14:00
- 장 소 : 한국아쿠르트 강당

■ 주부대학 30주년 기념 「가족사랑 · 이웃사랑 디너콘서트」

본회가 여성들의 능력제고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개설한 주부대학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하면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자리로 「가족사랑 · 이웃사랑 디너콘서트」를 마련합니다. 주부대학 동문들의 많은 참석으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12월 8일(토) 17:00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1층)

■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02)2273-2485 · 6300, (02)2266-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